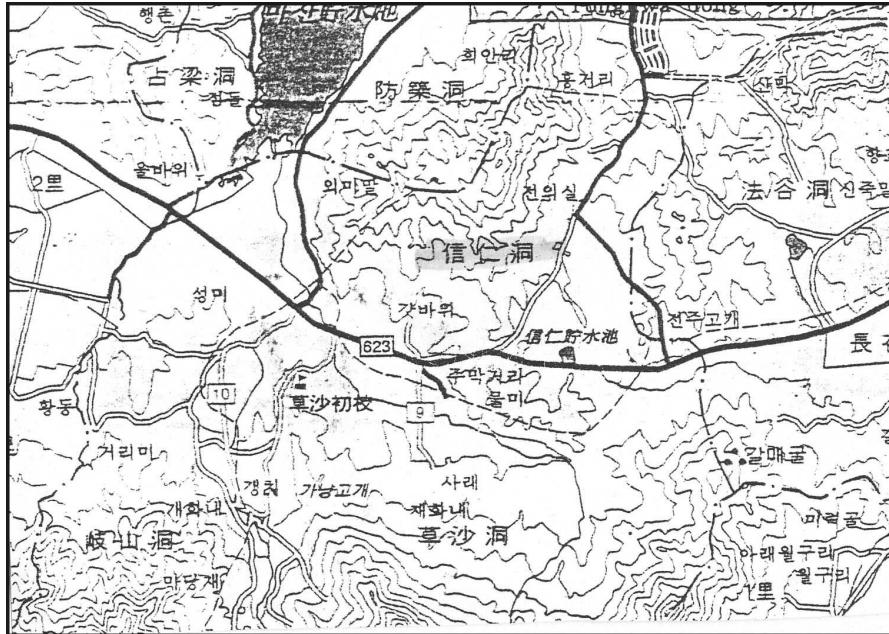


(2) 신인동 《 신인 1통 ~ 신인 2통 》

<신인동 전체 위치도>



<조사당시 신인동 전경 사진>



- 명칭유래

신인동은 2통으로 나뉘는데 1통은 천연적으로 갯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갯바위라고 하며 100여년전에는 마을입구까지 조수물이 들어와 물미동네라고도 한다. 2통은 신인동의 중심마을로 전의실이라 한다.

－ 통별 인구분포

신인동의 총 인구는 479명으로 통별 인구 분포를 알아보자.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자	여 자
신인1통(갯바위)	289명	155명	134명
신인2통(전의실)	190명	97명	93명

－ 통별 가구수

가구 수는 171가구이고 농가는 100가구 이며, 비농가는 71가구이다.

아래의 표로 통별 가구 수를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여 알아보자.

구 분 마 을 명	계	농가	비농가
신인1통(갯바위)	97 가구	57 가구	40 가구
신인2통(전의실)	74 가구	43 가구	31 가구

－ 통별 생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업	기타
신인1통(갯바위)	100%	59%	41%
신인2통(전의실)	100%	58%	42%

－ 통별 농경지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신인1통(갯바위)	48ha	31ha	17ha
신인2통(전의실)	41ha	20ha	21ha

－ 통별 농기계

구 분 마 을 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콤바인	건조기
신인1통(갯바위)	40대	8대	3대	20대	80대	4대	2대

신인2통(전의실)	28대	2대	7대	16대	30대	-	5대(고추)
-----------	-----	----	----	-----	-----	---	--------

- 통별 문화시설

구 분 마 을 명	마을회관	엠프	방송시설	마을문고	사물놀이악기
신인1통(갯바위)	1개소	1조	1조	-	1조
신인2통(전의실)	1개소	1조	1조	-	1조

- 통별 고령자

신인 1통(갯바위) 최고령자는 박용길 할아버지(92세)이며, 신인2통(전의실) 최고령자는 강씨 할머니(94세)이다.

- 통별 호당 소득

신인 1통 연평균은 600만원이며, 신인 2통 연평균은 600만원이다

- 통별 사진

<신인 1통>



온양 온천동에서 1km 남쪽에 위치

동 : 읍내동 · 서 : 신정호 저수지 상류 · 남 : 초사동

<신인 2통>



오봉산 밑에 위치한 마을
동 : 법곡 2통 · 남 : 신인 1통

－ 지명

- 갓 - 바위¹[입암] 【마을】 전의실 서쪽에 있는 마을. 갓바위가 있음.
- 갓 - 바위² 【바위】 갓바위 마을 뒤에 있는 바위, 모양이 갓과 같음.
- 문산(汶山) 【마을】 → 물미.
- 물 - 미[문산] 【마을】 갓바위 동남쪽에 잇는 마을, 산골의 맑은 물이 흐름.
- 원 - 실이 【마을】 신인동에 있는 마을.
- 입암(笠岩) 【마을】 → 갓바위¹.
- 전의 - 실 【마을】 → 신인동.

신인 1통은 설에 의하면 신인통 물미는 옛날 마을이 형성될 때 바다 물이 만조 때에는 마을 입구까지 갯물이 들어오는 현상이 있었다고 전한다. 때문에 물밀골(물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신인2통 설에 의하면 신인2통은 일명 전의실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이름이라고 전한다. 옛날 마을에 청기와 집을 짓고 살면서 구동과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전씨를 길이기 위하여 그 사람 이름을 따서□전의실□이라 불렀다 전하고 있다.

－ 전설

신인1통 설에 의하면 신인1통 갓바위는 옛날 선사대사가 사례 황산에 올라서 궁터 명당을 찾고 있었을 때 이 마을에 있는 바위에서 갓 끈을 풀어 벗어놓고 쉬었다가 갔다고 하여□갓바위□라고 전하기도 하고 뒤 산에 서있는 바위 때문에□갓 바위□라 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 갯바위



신인동에 있는 갯바위에 얹힌 전설이다. 옛날 이 동네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특히 그 부부는 아내는 남편을 잘 시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잘 위해 주어 그 마을에선 금슬이 좋은 부부로 평판이 나 있었다. 다만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 부부는 가난한 살림이나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아주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니까 낭비하는 것도 늘고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다. 또 잘 살게 되었는데도 밭에 나아가 손수 일하고 길쌈질을 하는 아내가 왠지 불만스럽게 생각됐다. 그는 훗김에 동네에서 좀 떨어진 어느 주막에 가 술을 마셨다. 그 주막엔 예쁜 여자가 한명 있었는데 그 여자는 욕심이 많고 샘이 많은 간교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온 것을 보고 술을 마시고 있는 그의 불만을 꿰뚫어보고 이제는 잘살게 된 그의 재산이 탐나서 그의 곁에가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꾀었다. 남편은 그의 부인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다가 부인보다 예쁘고 또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여 그만 그녀의 꾀에 빠져 버렸다. 차츰 그는 외박하는 수가 늘어났고 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해 버렸다. 주막에 있는 여자는 어느새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남편의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매일 졸라댔다. 한편 그의 아내는 그와 같은 소문을 듣고 화내기는커녕 남편에게 그 여자와 아이를 집에 데려와 같이 살자고 했다. 그리하여 본부인과 작은 부인은 한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본부인은 화를 내지 않고 그 아들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잘 대해 주었다. 한테 작은 부인은 그래도 욕심이 차지 않아 매일매일 자꾸만 그 남편을 졸랐다. 멀리 도망가자고……. 그 남편은 처음엔 자기 부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안된다고 했지만 차츰 그 여인의 꾀에 빠져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그 둘이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 남편은 보약이라고 해서 본부인을 위해 지어왔는데 그 속엔 독약이 들어 있었다. 어느 때 같으면 쳐다 보지도 않던 작은 부인은 손수 그녀가 약을 끓여서 본부인에게 갖다 주었다. 본부인은 그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그 약을 모두 마셨다. 약을 먹은 것을 확인하고 그 남편과 작은 부인은 새벽이 되면 탄로가 날 것 같아 집에 있는 재물을 챙겨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도망을 쳤다. 그들이 마을

입구를 벗어나려 할 때 갑자기 조용했던 하늘이 번개와 천둥을 치면서 그들 셋에게 몰려와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남편은 갓을 쓴 채 그대로 돌이 되어 갓바위라고 한다.

● 물 미

신인동에 물미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전설이다.

옛날 만석이라는 건강하고 잘생긴 청년이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었다.

만석은 효성이 지극하여 어려움을 참아 내며 곳곳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의 어머니가 자리에 눕게 되었다. 만석은 지극한 효성으로 어려운 살림에 별의별 약을 다 써 보았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어머니가 자리에 누워있는지 한달 후에 어머님께서□애야 내가 잉어 한 마리만 먹으면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구나□하시는 것이다. 그 동네에서 강까지는 수 백리였으며 겨울에 잉어를 잡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만석은 낚시 도구를 가지고 수 백리 눈길을 걸어갔다. 돌로 얼음을 깨고 고기가 오기를 기다렸다. 깜박 조는 동안 잉어를 본듯하여 눈을 떠보니 얼음 위에서 잉어가 팔딱팔딱 뛰고 있었다. 만석은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며 천지신명께 감사드렸다. 만석은 어머니께 드릴 생각으로 잉어를 가슴에 조심스레 안고 바빠가고 있었다. 한참을 가다보니 웬 노파가 쓰러져 있었다.□아니 이것보세요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할머니는 힘없이 눈을 뜨고는□이봐 젊은이 나에게 잉어를 주오! 난 잉어가 필요해. 잉어 좀 주오□만석은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가슴에 안고 가던 잉어를 뒤로 감추었다. 할머니는 애원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만석은 심히 괴로웠다. 이것을 할머니께 주자니 어머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가자니 할머니가 그냥 눈길에 쓰러져 돌아가실 텐데 만석은 깊이 생각하다가 어머님께는 다시 강으로 가서 잡아다 드릴 수 있지만 돌아가시게 된 할머니는……. 하는 생각을 하며 할머니께 드렸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웃으시며□만석아 집으로 가 보아라. 윗동네에 물이 들어올 테니 그곳에 가서 잡아다 어머님께 드려라□하면서 사라졌다. 만석은 깜짝 놀라 쳐다보니 할머니는 온데 간데 없었다. 만석은 급히 마을로 가니 윗 윗동네에 물이 들어왔다고 했으며 어머니의 병도 나았다 한다. 그리고 만석의 동네는 물이 들어오는 바로 옆 동네라 하여 물미라 한다고 한다.